

상록탑

# 역사란 무엇인가



공나은  
대학취재부 부장

“

## 역사 본연의 의미를 잊지 말 것

”

같은 사건을 “사복 경찰 동원하더니...” 이화여대생 부상 사진 ‘시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처럼 하나의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언론 매체마다 어떤 점을 강조해서 쓰는지가 다를 수 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저자인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헐렛 카(Edward Hallett Carr)가 역사와 관련된 유명한 말을 남겼다. ‘역사’의 정의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다.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역사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역사가들이 각자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재구성해 기록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역사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어떤 역사를 직접 보고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재구성해놓은 역사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배운다.

역사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존재함을 알고 이를 비교하며 공부하는 것도 역사 공부의 일환이다. 하나의 같은 사실을 왜 다르게 보는지,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비교하고 분석해보는 과정 자체에서 역사 공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영화 ‘인도차이나’에 반영된 프랑스인의 시각과 인도차이나 현지인 시각을 비교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분석하면서 당대 상황을 이해해볼 수 있다. 10월29일 본교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왜 여러 매체가 서로 다른 부분을 강조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하나의 시각만을 배우도록 강요하는 한국사교과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역사의 본질을 잊었다는 점에서부터 국정교과서는 모순적이다. 정부는 우리의 후손들이 역사 본연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시대에 역행하는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학생 칼럼

# 퇴행



조은혜  
광고홍보·11

“

## 역사 교과서 국정화, 민주주의 퇴행의 시작

”

다. 공산주의 국가가 하는 일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마찬가지다.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김일성의 주체사상 소개가 가능했던 건 ‘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보고,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라는 교육부의 집필 기준때문이다. 최종 승인(2014년 1월)을 한 것 또한 교육부다. 이것이 옳지 않다면 새로운 집필 기준을 만들

어 검인정 과정을 수정하면 된다. 최종 결정자를 경질하고 새로운 결정자를 뽑으면 된다. 일부 집필진들이 집필 기준과 검인정 과정에 불복해 소송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집필진이 패소한다면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선택지를 수정해 소비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답이다. 국가가 나서서 시장의 선택지를 빼앗고 하나의 선택만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독재일 뿐이다.

2017년에 나올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지는 알 수 없다. 역사상 가장 좋은 교과서를 만들지도 알 수 없다. 지금 알 수 있는 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던 국가가 타율과 획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자유적이며 반민주적이다. 너무나도 당연히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실무 지휘자였지만 8개월 만에 조기 교체된 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은 과거 교수 시절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국정-검인정-자유발행 순서로 나간다”고 했다. 그의 말이 꼭 맞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행 중이다.

여론광장

# 관심의 중요성

오늘 아침 유관순 열사 서술 누락을 운운하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알리는 교육부의 광고를 보며 국정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차 싶었습니다.

문득 “여론에 의해 나도 반대한다는 대학생이 아닌 각각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대학생이 되라”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발행한 교과서만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겠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이 대체 무엇 일까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며 입장이 다른 사

람들의 경험이 담긴 시간을 나타냅니다. 정부가 말하는 국정화는 ‘국가에서 역사의 내용들을 하나로 통합할 것이니 그것이 곧 올바른 역사관이다’고 하는 강제적인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역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집필되는 것이며 그 사람의 의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역사 속에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왜곡 논란이 가장 많은 부분 또한 정치적 사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신에 대한 기록을 후대 사람들을 위해 남기라고 했을 때 과연 객관적으로 적을 수 있을까요? 당시 아무리 힘들었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기억 속에는 미화돼 남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의 과오들을 적을 수 있을까요? 역사책을 국정화 하는 것, 역

사의 기록을 국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와 같은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유관순 열사에 대한 교육부 광고는 분명한 여론조작 행위입니다. 광고가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한 해명으로 ‘2014년 검인정 교과서는 그러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2015년 현재 그 부분이 모두 개선되어 8개의 검인정교과서 모두 유관순 열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정화교과서 정책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시간도, 그에 대해 논의할 시간도 없이 빠르게 진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변하지도 않는 정치판’이라 말하며 무시할 사항도 정치적 논쟁도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한 율고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번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남서연(사과·15)

사설

# 국민 뜻 귀기울여 ‘2015 을미사화’ 막기를

(乙未史禍)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교육부가 10월12일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전국 곳곳에서 반발의 움직임이 일었다. 대학가는 그 반대 운동의 중심에 있다. 대학의 교수들은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역사학 관련 학자들은 집필을 거부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였고, 국정교과서 반대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집어 들었다.

본교 또한 이러한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76명의 교수들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며 국정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10월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여성대회 참석을 위해 본교를 방문하자 본교 학생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할 수 없다”며 방문을 거부하고 시위에 나섰다.

조선시대에는 사관(史官)이라는 관리가 있었다. 매일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담은 사초(史草)를 쓰고 이를 통해 실록(實錄), 즉 역사책을 만들던 이들이었다. 그 어떤 강한 권력에도 사관들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야 했으며, 거짓을 적거나 사초를 수정하는 일은 목숨 걸고 막아야 했다. 역사는 누군

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고쳐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관은 역사를 쓰는 자이자, 역사를 지키는 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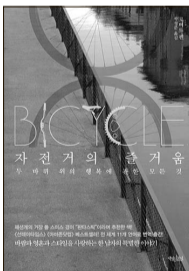
오늘날, 교과서 국정화를 눈앞에 둔 대학가는 21세기 ‘사관’이 됐다. 교수와 학생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돼 역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누군가에겐 유리하도록 고르고 가려진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11월2일, 이번 1506호가 발행되는 날은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행정 예고한지 20일이 되는 날이다. 20일의 행정 예고 기간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위해 존재한다. 이 기간 동안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학생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사복 경찰을 동원해 학생들의 앞길을 막는 일이 아니다. 1967명의 교수들(10월28일 자정 기준)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고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견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역사’다. 정부는 부디 사관의 목숨을 빼앗고 사초를 불태웠던 과거 일부 왕들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때의 사화(史禍)가 역사책 속에 남아있듯, 2015 을미년의 모든 일들도 수많은 ‘사관’들에 의해 역사로 기록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금주의 책



**자전거의 즐거움** 로버트 펜 지음. 서울:책읽는수요일, 2015. 자전거와 함께하는 삶을 사랑하는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새로운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자신만의 자전거를 만드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자는 자전거의 프레임, 기어와 페달, 바퀴와 안장 등을 직접 고르며, 전 세계를 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과 함께 늘어갈 수 있고, 세상에서 하나뿐인 꿈의 자전거를 완성하여 두 바퀴 위의 행복을 전합니다. 원제인 'It's all about the bike'가 의미하듯, 이 책에는 자전거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화인 여러분이 인생의 가치를 더하는 물건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대 도서관 좋은 책 추천위원회-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 입기도서 / 5층 일반자료실 629.2272 P381번

0930~1029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모래 사나이: E. T. A. 호프만 단편선	Hoffmann, Ernst Theodor Amadeus	문학과지성사	2001
2	아리랑: 趙廷來 大河小說 제2판	조정래	해남	2004
3	노동과 페미니즘	조순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4	신과 함께: 저승편	주호민	애니북스	2011
5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재판	Foucault, Michel	나남	2003
6	로마인 이야기	염아칠생	한길사: 한길사	1995-2007
7	거시경제학	Mankiw, N. Gregory	시그마프레스	2014
8	(캠벨) 생명과학 포커스	Urry, Lisa A. Campbell, Neil A., 전상학	바이오사이언스출판	2014
9	질적연구방법론 2판	김영천	아카데미프레스	2012-2013
10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뒤집어지는 연구 부정과 '자기검증'이라는 환상	Broad, William J	미래M&B	2007
11	1Q84: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촌상준수	문학동네	2009-2010
12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James, E. L.	시공사	2012
13	버림받은 황비: 정유나 장편소설	정유나	D&C books: 디앤씨 미디어	2013-2015